

# SNS를 이용한 작업치료사와 일반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 연구

홍덕기\* · 박인혜\*\* · 문종훈\*\*\*

## An Investigation of Disability Awareness Between Occupational Therapists and None Therapists using SNS

Deok-Gi Hong\* · In-Hye Bak\*\* · Jong-Hoon Moon\*\*\*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사와 일반인 사이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설문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의 설문을 통하여 편의표본추출 방법으로 온라인 배포되었으며, 일반인의 응답 62건, 작업치료사의 응답 60건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식은 작업치료사와 일반인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 그러나 장애인의 하위항목 4번과 7번에서 작업치료사가 일반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5$ ). 모든 응답자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장애인식이 긍정적이었다( $p<.05$ ). 가족 또는 친척 중 장애인의 유무에 따른 장애인식은 차이가 없었다( $p>.05$ ). 그러나 가족 또는 친척 중 장애인이 '있다'라고 응답한 자가 '없다'라고 응답한 자보다 항목 4번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5$ ). 나이와 장애인식에서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p>.05$ ).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mparing the disability awareness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none therapists, and investigating the disability awarenes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hrough the online with a questionnaire based on social network service, and analyzed 62 responses of none therapists and 60 responses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results, disability awarenes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occupational therapists and none therapists( $p>.05$ ). But, in subscale of disability awareness item 4 and 7, occupational therapis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e therapists( $p<.05$ ). In all respondents, disability awareness was more positive in males than females( $p<.05$ ). Also, there was no difference in disability awareness according to presence of disabled persons among family members or relatives( $p>.05$ ). However, All respondents who answered 'Yes' in the presence of disabled persons among family members or relatives in responde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ho answered 'No' in item 4( $p<.05$ ).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age and disability awareness( $p>.05$ ). The authors discussed suggestions in results of this study.

### 키워드

Disability awareness, Disabled person, Occupational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y  
장애 인식, 장애인, 작업 치료사, 작업 치료

\* 원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건강증진연구소 (hongmarin@hanmail.net)

\*\* 구미대학교 작업치료과(kot760@gumi.ac.kr)

\*\*\* 교신저자: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 연구과

• 접수일 : 2018. 06. 05

• 수정완료일 : 2018. 08. 10

• 게재확정일 : 2018. 10. 15

• Received : Jun. 05, 2018, Revised : Aug. 10, 2018, Accepted : Oct. 15, 2018

• Corresponding Author : Jong-Hoon Moon

Dept. of Healthcare and Public Health Research, Nat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Institute,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Email : garnett231@naver.com

## I. 서론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게 그들이 원하는 작업(occupation)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재활의학의 한 분야이다[1]. 따라서 작업치료사는 정신장애인에게 심리치료 기반의 작업요법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적응력을 도모하고 신체장애인에게는 기능회복을 위해 운동 및 작업(행동)과 같은 중재를 통하여 일상으로 복귀시키도록 돕는 전문가이다[2].

작업치료의 발생배경은 18세기 유럽 Philippe Pinel과 Johann Christian Reil이 병원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정신질환자 즉 장애를 가진 자에게 잔인한 폭력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닌 간단한 일(occupation)과 활동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두 혁명가의 행동은 도덕적 치료(moral treatment)의 기반인 작업치료의 근원이 되었다[3].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인식은 학과를 입학하면서부터 임상가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구는 5000만 대한민국의 5%인 250만 이상이며,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장애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되었다[4]. 장애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아직까지도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나와 다른 사람으로 여겨 저급한 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5].

장애인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Wolraich와 Siperstein[6]는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중 의사가 다른 전문가보다 장애인식이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며, Jung과 Kim[7]의 연구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중 간호사가 의사보다 장애인식 수준이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White와 Olson[8]의 의료인과 치료사 사이에 장애인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작업치료사가 의료인과 물리치료사보다 더 긍정적임을 밝혔다. 위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작업치료사가 의료종사자들 중에서 장애인식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Shin 등[9]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나타냈는데, 재활관련학과 학생이 비 재

활관련학과 학생보다 장애인식이 더 부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물론 Shin 등[9]의 연구에서 재활관련학과에는 작업치료학과를 포함한 다양한 학과가 있었으나, 이들이 미래의 의료계종사자임을 고려해 볼 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IT(: Information Technology) 환경의 계속된 발전에 따른 인터넷 기술의 다양성 증대는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의 삶의 윤택하게 만든다[10]. 최근 들어 시행하는 조사는 과거 설문지 작성을 통해 연구자가 다시 컴퓨터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제공하는 설문지 제작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단하게 시행되고 있다[9,11-13]. 이러한 연구방식은 연구기간을 줄이고 연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인과 작업치료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하였다.

저자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과 작업치료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둘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응답자의 나이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인가?

## II. 연구방법

### 2.1 대상자

본 연구는 일반인과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법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18년 1월 5일부터 1월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다.

###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Shin 등[9]이 사용한 장애인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나이, 직업(회사원, 서비스직, 공무원, 자영업)을 포함한 직업은 모두 일반인

으로 분류함), 가족 및 친척 중 장애인의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1) 장애인식 설문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Shin 등[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장애인식 설문지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 사회참여, 사회적 제한 등의 인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다 [Appendix 1]. 이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최소 점수는 20점이고 최대 점수는 80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식 설문지 문항의 내적 일치도 Cronbach'α=.744이었다.

2.3 절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의 설문지는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설문지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전달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일반인과 작업치료사에게 전송되었다. 연구자는 총 131건, 일반인 67건, 작업치료사 64건의 응답을 받았으며, 이 중 누락이 있었던 응답 일반인 5건(7.5%), 작업치료사 4건(6.3%)을 제외한 총 122건(일반인 62건, 작업치료사 60건)을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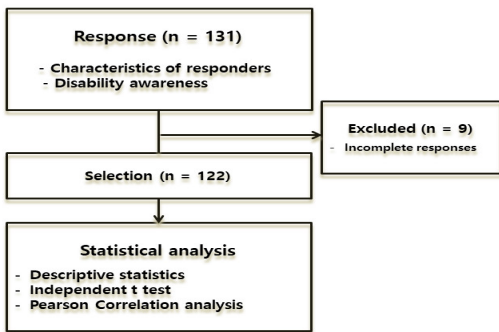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다이어그램  
Fig. 1 Diagram of present study

2.4. 통계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2로 분석하였다. 응답한 자료는 빈도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나이, 직업, 근무경력, 가족 및 친척 중 장애인의 유무에 따

른 장애에 대한 인식 차이는 독립 t검정(independent t test)으로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나이와 장애에 대한 인식 총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장애인식 설문지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식 (1)은 독립 t 검정의 산출식이다.

$$T = \frac{(\bar{X} - \bar{Y}) - (\mu_1 - \mu_2)}{\sqrt{\frac{1}{n_1} + \frac{1}{n_2}}} \tag{1}$$

두 표본평균의 차  $\bar{X} - \bar{Y}$ 의 평균과 분산 및 표준오차는 아래와 같다.

평균:  $E(\bar{X} - \bar{Y}) = \mu_1 - \mu_2$

분산:  $\text{Var}(\bar{X} - \bar{Y}) = \frac{\eta_1^2}{n_1} + \frac{\eta_1^2}{n_2} = \eta^2 \left( \frac{1}{n_1} + \frac{1}{n_2} \right)$

표준오차:  $\text{s.e.}(\bar{X} - \bar{Y}) = \eta \sqrt{\frac{1}{n_1} + \frac{1}{n_2}}$

위에서  $\eta^2$ 는  $\eta^2 = \eta_1^2 = \eta_2^2$  으로 공통분산이라 하며,  $\eta$ 는 공통표준편차이다.

식 (2)는 피어슨 상관계수의 산출식이다.

$$r = \frac{\sum_{i=1}^n (X_i - \bar{X})(Y_i - \bar{Y})}{\sqrt{\sum_{i=1}^n (X_i - \bar{X})^2} \sqrt{\sum_{i=1}^n (Y_i - \bar{Y})^2}} \tag{2}$$

두 변수를 X와 Y라 하고 표본을 (X<sub>1</sub>, Y<sub>1</sub>), (X<sub>2</sub>, Y<sub>2</sub>), ..., (X<sub>n</sub>, Y<sub>n</sub>)이라 하고 여기서 n은 표본의 크기이다. 두 변수의 평균을 각각  $\mu_X$ 와  $\mu_Y$ 로, 분산을 각각  $\eta_X^2$ 과  $\eta_Y^2$ 으로 표현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III.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인식

본 연구에 응답한 자의 나이는 28.98±4.05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작업치료사가 60명(49.2%), 회사원, 서비스직, 공무원, 자영업을 포함한 직업을 가

진 일반인은 62명(50.8%)이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71명(58.2%), 여성이 51명(41.8%)로 나타났다. 응답자에서 가족 및 친척 중 장애인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24명(19.7%)이었다. 응답자의 장애인식 총점의 평균은 42.84±8.16점이었다[표 1].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인식 총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ability awareness in responders (n=122)

Variables	N(%)	Mean±SD
Age, years		28.98±4.05
Job	Occupational therapists	60(49.2)
	None therapists	62(50.8)
Gender	Male	71(58.2)
	Female	51(41.8)
The presence of disabled persons among family members or relatives	Yes	24(19.7)
	No	98(80.3)
Disability awareness total		42.84±8.16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SD.

표 2. 작업치료사와 일반인의 장애인식의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disability awareness between OT and NT

	OT (n=60)	NT (n=62)	p
Total score	42.50±9.18	43.18±7.10	.649
Scale 1	2.20±0.92	2.44±0.86	.146
Scale 2	2.75±0.86	2.55±0.78	.177
<b>Scale 3</b>	2.15±0.61	2.52±1.08	.023
<b>Scale 4</b>	3.02±0.97	2.47±1.16	.005**
Scale 5	2.22±1.12	1.97±0.85	.171
Scale 6	1.48±0.50	1.61±0.78	.275
<b>Scale 7</b>	3.27±0.78	2.84±0.94	.007**
Scale 8	2.58±1.00	2.58±1.02	.988
<b>Scale 9</b>	1.38±0.52	1.60±0.56	.031*
<b>Scale 10</b>	2.27±0.90	2.79±0.85	.001**
Scale 11	1.75±0.73	1.89±0.75	.307
Scale 12	2.30±0.85	2.02±0.76	.054
Scale 13	2.18±0.91	2.10±0.86	.591
Scale 14	1.48±0.54	1.63±0.73	.213
<b>Scale 15</b>	1.57±0.59	2.08±0.82	.000***
Scale 16	1.72±0.96	1.61±0.58	.473
Scale 17	1.40±0.56	1.48±0.50	.385
Scale 18	2.18±1.07	2.15±0.90	.832
Scale 19	2.48±1.13	2.61±1.09	.520
Scale 20	2.12±0.98	2.26±0.99	.429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OT: occupational therapists; NT: none therapists

표 3.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장애인식의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disability awareness according to gender in responders

	Male (n=71)	Female (n=51)	p
<b>Total score</b>	41.48±7.19	44.75±9.08	.029*
Scale 1	2.35±0.91	2.27±0.87	.638
Scale 2	2.56±0.86	2.76±0.76	.183
Scale 3	2.41±0.98	2.24±0.76	.275
Scale 4	2.61±1.02	2.92±1.18	.117
<b>Scale 5</b>	1.90±0.97	2.35±0.98	.013*
Scale 6	1.61±0.75	1.47±0.50	.235
Scale 7	3.03±0.86	3.08±0.93	.760
<b>Scale 8</b>	2.42±1.01	2.80±0.96	.038*
Scale 9	1.51±0.58	1.47±0.50	.719
<b>Scale 10</b>	2.39±0.90	2.73±0.90	.047*
Scale 11	1.75±0.77	1.92±0.69	.190
<b>Scale 12</b>	1.93±0.70	2.47±0.86	.000***
<b>Scale 13</b>	1.93±0.85	2.43±0.85	.002**
Scale 14	1.49±0.53	1.65±0.77	.193
Scale 15	1.82±0.92	1.84±0.46	.836
Scale 16	1.55±0.79	1.82±0.77	.058
Scale 17	1.38±0.52	1.53±0.54	.126
<b>Scale 18</b>	1.94±0.88	2.47±1.05	.004*
Scale 19	2.63±1.20	2.43±0.96	.304
Scale 20	2.27±1.03	2.08±0.91	.287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2) 작업치료사와 일반인 사이에 장애인식 비교

장애인식 총점은 작업치료사와 일반인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그러나 장애인식의 하위항목 4번과 7번에서 작업치료사가 일반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 또한 일반인은 작업치료사보다 하위항목 3번, 9번, 10번, 15번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5) [표 2].

(3)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장애인식 비교

모든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장애인식 총점 비교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장애인식이 유의하게 낮았다(p<.05). 즉 더 긍정적이었다. 하위항목에 대한 분석에서 항목 5번, 8번, 10번, 12번, 13번, 18번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p<.05)[표 3].

(4) 응답자에서 가족 또는 친척 중 장애인의 유무에 따른 장애인식 비교

모든 응답자에서 가족 또는 친척 중 장애인의 유무에 따라 장애인식을 비교한 결과, 장애인식 총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그러나 하위항목 분석에서 '있다'라고 응답한 자가 '없다'라고 응답한 자보다 항목 4번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5), 2번, 9번, 11번, 13번, 15번, 19번, 20번에서는 유의하게 낮았다(p<.05)[표 4].

(5) 응답자의 나이와 장애인식 사이에 상관관계

모든 응답자의 나이는 장애인식 총점과 상관없이 없었다(p>.05). 작업치료사, 일반인에서도 나이와 장애인식 총점 사이에 상관은 없었다(p>.05)[표 5].

(6) 장애인식 설문지의 내적 일치도

본 연구에서 장애인식 설문지 20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α=.744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20문항에서 내적 일치도를 감소시키는 항목 3번

표 4. 응답자에서 가족 또는 친척 중 장애인의 유무에 따른 장애인식의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disability awareness according to presence of disabled persons among family members or relatives in responders

		Yes (n=60)	No (n=62)	p
Disability awareness questionnaire	Total score	40.58±6.49	43.40±8.46	.131
	Scale 1	2.04±0.91	2.39±0.88	.089
	<b>Scale 2</b>	2.04±0.55	2.80±0.81	.000***
	Scale 3	2.58±0.97	2.28±0.87	.132
	<b>Scale 4</b>	3.25±1.07	2.61±1.07	.010*
	Scale 5	2.08±0.88	2.09±1.03	.970
	Scale 6	1.63±0.49	1.53±0.69	.530
	Scale 7	3.13±0.85	3.03±0.90	.643
	Scale 8	2.33±0.76	2.64±1.05	.106
	<b>Scale 9</b>	1.29±0.46	1.54±0.56	.029*
	Scale 10	2.50±1.14	2.54±0.85	.871
	<b>Scale 11</b>	1.50±0.51	1.90±0.77	.017*
	Scale 12	2.33±0.82	2.11±0.81	.234
	<b>Scale 13</b>	1.92±0.41	2.19±0.96	.033*
	Scale 14	1.88±0.95	1.48±0.52	.059
	<b>Scale 15</b>	1.50±0.51	1.91±0.79	.017*
	Scale 16	1.46±0.51	1.71±0.84	.155
	Scale 17	1.50±0.51	1.43±0.54	.557
	Scale 18	2.04±1.00	2.19±0.98	.498
	<b>Scale 19</b>	2.04±0.95	2.67±1.11	.008**
<b>Scale 20</b>	1.54±0.59	2.35±1.00	.00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표 5. 응답자의 나이와 장애인식 사이에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disability awareness in responders

	Responder (n=122)	OT (n=60)	NT (n=62)
Age	.023	.085	-.090

Values are expressed a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OT: occupational therapists; NT: none therapists

표 6. 응답자에서 장애인식 설문지의 내적 일치도  
 Table 6. Internal consistency of disability awareness questionnaire in responders

	Cronbach'α
20 item	.744
18 item (except scale 3, 4)	.819

0.8≤α<0.9 good, 0.7≤α<0.8 acceptable

과 4번을 제거한 신뢰도 분석 결과, 18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α=.819로 나타났다[표 6].

#### IV. 고찰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와 일반인 사이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저자의 연구문제에 결과와 시사점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치료사와 일반인 사이의 장애인식은 차이가 없었다. 모든 응답자의 장애인식 총점은  $42.84 \pm 8.16$ 점이었으며, 일반인은  $43.18 \pm 7.10$ 점, 작업치료사가  $42.50 \pm 9.18$ 점으로 치료사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낮았다.

본 연구에서 작업치료사의 장애인식 총점 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을 연구한 Shin 등[9]의 결과와 견주어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이들의 연구에서 1957명 대학생의 장애인식 총점은  $40.52 \pm 7.39$ 점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작업치료사의 장애인식 총점보다 약 2점이 더 낮았는데, 표본크기가 컸던 Shin 등[9]의 연구에서 평균 2점의 차이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것을 고려하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비교적 젊은 나이의 대학생이 장애인과 직접 대면하며 치료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치료사보다 장애인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한다. Choi[14]의 연구에서도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장기간 접촉이 없는 사회복지사보다 환자와 많이 접촉하는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Choi[14]의 연구결과는 Shin 등[9]의 연구에서 확인한 대학생의 장애인식 총점이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본 연구의 장애인식 총점보다 긍정적이었던 근거가 된다.

작업치료사와 일반인 사이에 장애인식 총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항목 4번과 7번은 작업치료사가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하위항목 3번, 9번, 10번, 15번에서는 일반인이 작업치료사보다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각 하위항목의 질문을 보면, 4번은 '장애인이 될까 두려움이 있는 지' 질문하고 있고 7번은 '장애인을 보았을 때, 더 신경이 쓰이는지' 질문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4번과 7번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적 특성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한다.

둘째, 남성은 여성보다 장애인식이 더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장애인식이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Shin 등[9]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Shin 등[9]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수용적이고 모성애가 깊으며,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에 반응하는 정도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이유는 여성 작업치료사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남성 작업치료사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한다[15]. Lee 등[15]은 작업치료 여성 185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언어적 성희롱이 71.4%, 신체적, 시각적 성희롱이 48.6%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하위항목 분석에서 5번, 8번, 10번, 12번, 13번, 18번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더 긍정적이었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작업치료사가 응답자의 절반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5번의 경우 임상에서 성인 환자의 경우 노인남성이 여성을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한다. 10번, 13번, 18번은 장애를 가진 환자의 기능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고려하면, 대부분 치료를 받는 장애인, 즉 환자들은 다양한 기능의 문제를 나타내므로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로 생각한다.

셋째, 가족 또는 친척 중 장애인의 유무에 따른 장애인식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하위항목 비교에서 '있다'라고 응답한 자가 '없다'라고 응답한 자보다 4번 항목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으며, 2번, 9번, 11번, 13번, 15번, 19번, 20번에서는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4번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던 이유로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작업치료사와 동일하게 일반인 역시 가족 및 친척 중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있다'라고 응답한 자에서 2번, 9번, 11번, 13번, 15번, 19번, 20번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가족 및 친척이 장애인이므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장애인 보조도구에 대해 두려움이 없을 것이며, 장애인도 정상적인 생활 및 기능저하와 사회적 편견, 일, 교육능력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를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응답자의 나이와 장애인식은 의미있는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응답자 나이가  $28.98 \pm 4.05$ 세로 나이 스펙트럼이 좁았기 때문으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인식 설문지 20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744이었고 항목 제거 시  $\alpha$  값을 높일 수 있는 문항 3번과 4번을 제거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819으로 좋은 내적 일치도를 나타냈다. 3번 항목은 '내가 장애인이라면 사회에 적응을 잘해 나갈 수 있는 지' 질문하고 있고, 4번 항목은 '장애인이 될까 두려움이 있는 지' 질문하고 있다. 이 두 항목은 작업치료사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 변화를 나타낸 항목으로 생각한다. 작업치료사는 장애를 가진 환자와 치료를 함께 수행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며, 편마비, 언어장애, 심리문제, 그리고 기본적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환자를 대면한다 [16]. 즉 이러한 작업치료사의 경험이 3번과 4번 항목에서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장애인과 접촉하여 치료를 수행하는 재활전문가에게 두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제하여야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치료사와 일반인으로 구성하였으나 일반인의 직업군이 회사원, 서비스직, 공무원, 자영업으로 한정적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수가 적었으므로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장애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알아본 인구학적 변수가 나이, 성별, 직업군, 가족 및 친척 중 장애인의 유무로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와 일반인 사이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으며, 모든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식을 알아보았다. 또한 응답자의 나이와 장애인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식 총점은 작업치료사와 일반인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5$ ). 그러나 장애인식의

하위항목 4번과 7번에서 작업치료사가 일반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5$ ). 또한 일반인은 작업치료사보다 하위항목 3번, 9번, 10번, 15번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5$ ).

둘째, 모든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장애인식 총점 비교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장애인식이 유의하게 낮았다( $p < .05$ ).

셋째, 모든 응답자에서 가족 또는 친척 중 장애인의 유무에 따라 장애인식을 비교한 결과, 장애인식 총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 그러나 가족 또는 친척 중 장애인이 '있다'라고 응답한 자가 '없다'라고 응답한 자보다 항목 4번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p < .05$ ), 2번, 9번, 11번, 13번, 15번, 19번, 20번에서는 유의하게 낮았다( $p < .05$ ).

넷째, 모든 응답자의 나이는 장애인식과 상관이 없었다( $p > .05$ ).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작업치료사와 일반인의 장애인식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사와 일반인의 장애인식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환자와 접촉하여 치료를 수행하는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재활전문가에 대한 평가도구가 새롭게 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References

- [1] M. V. Radomski and C. A. T. Latham, *Occupational therapy for physical dysfunction*. New York: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8.
- [2] L. W. Pedretti, and M. B. Early,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skills for physical dysfunction*. London: Mosby, 2001.
- [3] S. Peloquin, "Moral Treatment: Contexts Considered," *American J. of Occupational Therapy*, vol. 43, no. 8, 1989, pp. 537-544.
- [4] H. Shin, "A Study on Status and Needs of In-Service Education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Specialists i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Disability & Employment*, vol. 27, no. 2, 2017, pp. 5-27.
- [5] D. ChunI, N. Kim, and J. Seo, "Comparative study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J.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2016, pp. 11-18.

[6] M. L. Wolraich and G. N. Siperstein, "Physicians and other professionals' experience and prognosis for mentally retarded individuals," *American J. of Mental Deficiency*, vol. 91, no. 3, 1986, pp. 244-249.

[7] H. K. Jung and M, H. Kim, "Attitudes of Physicians and Nurses toward with Disabled Person," *The Korean J.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 7, no. 2, 2004, pp. 213-219.

[8] M. J. White and R. S. Olson,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Rehabilitation Nursing*, vol. 23, no. 3, 1998, pp. 126-131.

[9] G. Shin, Y. Woo, H. Park, and J. Kim, "A Study about Factors Influencing on Awareness toward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by Undergraduate Students," *J.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21, no. 4, 2017, pp. 177-193.

[10] J. Moon and I. Bak, "The Effects of Self-Exercise Based on Health Care Application on Upper Extremity Function and Daily Living, Satisfaction in Patients with Stroke,"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2, no. 3, 2017, pp. 515-524.

[11] J. Moon, S. Heo, C. Na, S. Kim, S. Kang, and H. Kim, "Healthcare Research for Sexual Function and Preference of Women According to Penile Characteristic Using Questionnaire of Smartphone SN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2, no. 5, 2017, pp. 941-956.

[12] J. Yoon, S. Heo, C. Na, S. Kim, and J. Moon, "Healthcare Research for Premature Ejaculation and Erectile Function Using Questionnaire of Smartphone SN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2, no. 6, 2017, pp. 1197-1210.

[13] J. Moon, C. Na, K. Park, S. Heo, and C. Lee, "A pilot investigation for usage problems, improvement needs and current status of upper extremity rehabilitation equipment using SN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3, no. 2, 2018, pp. 463-472.

[14] G. Choi, "Attitudes of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ts Related Variables," *J.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6, no. 4, 2012, pp. 119-136.

[15] J. Lee, Y. Song, and T. Cha "A Study on Job

Stress and Working Environment of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2, 2017, pp. 484-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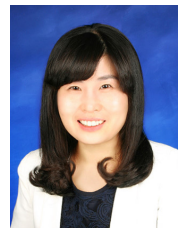
[16] M. Fallahpour, H. Jonsson, M. T. Joghataei, A. N. Nasrabadi, and K. Tham, "I Am Not Living My Life": Live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Everyday Occupations After Stroke in Tehran," *J. of rehabilitation medicine*, vol. 45, no. 6, 2013, pp. 528-534.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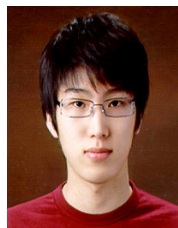
**홍덕기(Deok-Gi Hong)**

2009년 건양대학교 작업치료과 보건학사  
 2013년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 석사  
 2016년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 박사  
 2018년 현재 원광대학교 작업치료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삼킴장애, 컴퓨터 인지재활



**박인혜(In-Hye Bak)**

2009년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  
 2012년 대구대학교 재활과학과 박사수료  
 2017년 현재 구미대학교 작업치료과 교수  
 ※ 관심분야 : 인지치료, 상지재활



**문종훈(Jong-Hoon Moon)**

2017년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작업치료학 석사  
 2018년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치료학 박사과정  
 2018년 현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 관심분야 : 건강증진

